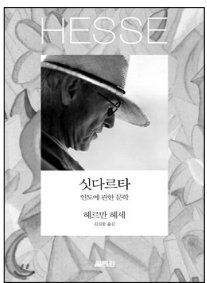


싯다르타의 불교적 자기실현은 번뇌 해탈



싯다르타 인도에 관한 문학
헤르만 헤세 지음
김길웅 옮김
열림원 펴냄
1만1천원

저자인 헤르만 헤세는 선교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 그 자신이 신학에 입학했다 자퇴한 것에서도 드러나듯 기독교 문화와 관계가 깊은 헤세지만, 동양, 특히 인도의 사상 또한 그의 한 면을 지탱했다. 헤세의 외할아버지는 저명한 인도학자였고, 그의 외사촌 빌헬름 군데르트 또한 동양학, 특히 중국과 일본의 불교에 정통한 이름난 학자였다. 이 책은 헤세 자신의 사상사로 봐도 틀리지 않을 만큼 이 책에서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맞닥뜨리는 무수한 고민들을 풀어 놓고 치열하게 그 답을 찾아 나선다.

이 책은 브라마 천년 '싯다르타'와 친구 '고빈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걸어가는 다양한 구도의 길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브라마만으로 날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며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던 '싯다르타'는 어느 날, 명상 중에 깊은 회에 빠진다.

"존경받는 브라마인 아버지, 최고의 스승들, 그들은 과연 행복한가? 그들 또한 끊임없이 목말라하는 구도자에 불과하지 않은가?" 등등. 그래서 싯다르타는 끝없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근원의 샘물, 즉 참나를 찾기로 결심한다. 함께 브라마의 길을 걸던 친구 고빈다가 싯다르타를 따른다. 수행 면에서 스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싯다르타, 그가 가는 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두 청년은 고행 수도승이 되어 고통스러운 수행에 몸을 맡긴다. 갈증과 추위를 극복하고, 습과 맥박을 조절하며, 자야를 없

애고 명상 속에서 왜가리가 되고, 죽은 자 같이 되고, 돌, 나무, 물이 되었다. 명상은 더욱 깊어져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공(空)이 상태에 머무를 수 있게 됐지만 단지 그뿐, 명상의 고프머리에는 다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윤회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좌절에 빠진 싯다르타의 귀에 '고타마'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다. 세상의 번뇌를 극복하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한 고타마, 두 청년은 그를 찾아 또다시 여정에 오른다. 고타마가 머무르는 제파와나 숲. 그곳에서 첫 번째 헤어짐의 순간이 찾아온다.

저자는 이 책에서 "깨달은 붓다의 가르침은 많은걸 담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법, 악을 멀리하는 법 등을요. 그러나 한 가지, 아주 분명하고 또 존중받아야 할 가르침 하나는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존이 직접 무엇을 체험했는지, 다시 말해 수만 명의 깨달으신 분들 가운데 고귀하신 붓다만이 체험한 것은 무엇이었던지, 그것이 어떤 비밀 하나는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존의 법문을 들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알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제가 손레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은 다른 가르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깐요. 오히려 저는 모든 가르침, 모든 스승들을 떠나려고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목적을 제 스스로 이루거나, 그렇지 않다면 죽고 싶을 뿐이지요."

깨달음은 가르침을 통해 전해질 수 없다고 확신하고 고타마를 뒤로한 싯다르타는,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인간' 과도 같다.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그는 아름다운 청년 카말라의 마음을 얻고, 대상(大商) 카마스바미의 신임을 얻어 장사를 배워 큰 부를 누린다. 싯다르타의 성공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그가 깨달음을 추구하며 배우고 익힌 것들에서 비롯됐다. 이루기로 마음먹은 것을 모두 이룬 싯다르타는 그러나 변해간다. 술과 도박에 빠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놀이와 같이 그것을 즐겼지만, 갈수록 초조해하고 성에에 연연하게 된다. 사십 대에 접어들어 흰 머리카락을 내보였고, 피어나는 꽃과 같은 연인 카말라의 얼굴에서는 피로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졌다. 그 자신이 경멸해 마지않던 불쾌함이 그의 얼굴서 엿보였을 때, 싯다르타는 꿈을 꾀다. 꿈에서 그는 세상 속에서 죽은 새를 길 위에 내던지는데, 그 순간 큰 슬픔을 느낀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과 얻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

주인공, 삶의 해법 찾아 길 떠나 깨달음 위한 구도의 길 형상화 만남과 이별 플랫폼은 소설적 묘미

깨달음은 말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책의 소설적 묘미는 '싯다르타'와 '고빈다'의 만남과 헤어짐에 있다. 모든 것을 두고 목적지도 없이 길을 떠난 싯다르타의 마음속에는 사실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죽음이었다. 깨달은 자 고타마 앞에서 당당하게 '깨달음이라는 목적을 제 스스로 이루거나, 그렇지 않다면 죽고 싶을 뿐'이라고 선언했던 싯다르타는 결국 죽음이러는 길을 택한다.

실패한 삶의 형상을 때려 부수는 것, 그래서 비웃는 신들의 발치에 그것을 내던져 버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죽음, 그가 증오했던 형상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리워했던 돌파구였던 것이다. 물고기들이 뜰어먹어

도 좋았다. 싯다르타라는 속물을, 제정신을 잃어버린 남자를, 망가지고 썩어가는 몸뚱어리, 맥이 풀리고 학대받은 영혼을 물고기들과 악어들이 그를 먹어치워버리던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싯다르타는 벼락같이 완전한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이내 깊은 잠에 빠진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십년은 지난 것 같다는 느낌과 함께, 자신 앞에 앉은 채로 잠든 한 남자, 고빈다와 재회한다. 고타마의 제자가 되어 오랫동안 수행의 길을 걸던 고빈다가 위험한 곳에서 잠이 든 한 남자를 보고 일행에서 떨어져 나와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이다. 먼저 친구를 알아본 싯다르타 덕분에 둘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지만, 현재의 모습에 대한 대화의 뿐, 이들은 다시 헤어져 자신의 길을 간다.

잠에서 깨어난 싯다르타는 강의 모습에 깊은 사랑을 느끼고 강물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후 싯다르타의 삶은 '강'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그러나 강은, 카말라와 카마스바미의 인간 세상이 그랬듯이, 싯다르타에게 또 한 번 깨달음을 위한 경험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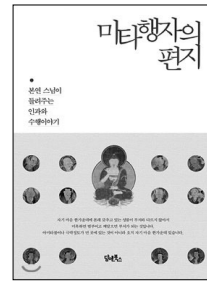
이 책의 마지막 장은 '고빈다'이다. 평생 계율을 지키며 젊은 승려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마지막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현자로 추앙받는 강가의 사공을 찾아 나선다. 고빈다는 사공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 날 길 떠나기 전 사공에게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가르침을 달라고 청한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러나 고빈다는 끝내 현자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하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 다만, 사공이 된 싯다르타의 미소를 볼 뿐이다. 강가에서의 싯다르타의 뜨거운 경험, 싯다르타와 고빈다와의 대화는 작품을 직접 읽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hyunbul.com

“미혹하면 바로 범부이고 깨달으면 그가 부처다”

미타행자의 편지

본연 스님 지음 | 담앤북스 펴냄 11만 3800원



과연 이 사바세계에 인과(因果)가 있을까? 아마 불교를 믿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즉 인과의 존재에 긍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들러받는다는 '자자자수(自作自受)'나 이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에 대한 공동 책임에 대해 말하는 공업중생(共業衆生)이란 논리는 어쩌면 불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 짓는 커다란 선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전생이나 극락은 존재할까? 대답하기 쉽지 않다. 보거나 경험할 수 없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서너 장이 넘는 이 '편지'에는 방금 받았던 '인과' '업' '극락'에 대한 궁금증을 한 꺼풀 벗겨낼 수 있는 열쇠가 담겨져 있다. 저자의 글에는 명제나 논증이 등장하지 않는다. 더욱이 어려운 불교 교리를 내세우지도 않는다. 인연과 업력으로 살아왔던 역사 속의 인물 혹은 수없이 많은 절집을 들으며 들었던 옛 어른들의 말씀, 혹은 본인이 체험했던 이야기들이 편지의 '소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어떤 논리보다 설득력이 강하다. 기도와 체험의 힘이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덮을 때쯤이면 누구나 인과 그리고 업이나 전생, 극락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런지도 모른다.

이 책의 저자 이력은 여쭙 보면 너무 단순해 독특하다. 열불신으로 근현대에 이름을 드높인 청화 큰스님(1924~2003) 밑에서 출가해 '본연'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늦깎이 출가였다. 그 후 송광사 강원을 졸업한 후에는 한 곳에 머물러 산 적이 없다. 한 철은 이 절에서 다른 철은 저 절에서 돌아다니며 기도 했다. 인연이 다하면 미련 없이 떠나는 운수납자(雲水衲子)의 모습 그대로다. 때론 소문난 기도처였고 때론 대중은 없고 삭막한 북풍만이 감도는 도량이었다. 청화 큰스님이 머물던 제주도의 자성원 주지 소임을 잠시 맡은 걸 제외하면 사관승의 길을 걸은 적이 없다. 십수 년을 오직 그렇게 '기도'로만 보냈다.

스님의 수행법은 나무아미타불 염불 수행이다.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나 극락 정토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 한가운데 있다'는 자성미타(自性彌陀) 수행이다. 하지만 스님은 한 가지 수

행법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한국불교의 병'이라고 진단한다. 지금도 꽤 많은 시간을 일체중생이 고통이 없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 수행을 하며 보내기도 하고, 진언이나 다라니, 참선 수행은 물론 위빠사나 같은 남방 수행도 마다 않는다. 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다. 첫번째 장인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사바세계>에서는 천수다라니 수행으로 유명한 근대 큰 스승 수월 스님 이야기를 비롯해 다라니 수행으로 묘 위에서 삼매에 들던 선암사 스님의 이야기 등 수행으로 극락세계를 만났던 출·재가자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두번째 <어제의 고통이 오늘의 행복입니다>편에서는 인연이나 다라니, 참선 수행만 때문 스스로 그 운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뀌거나 수행자 혹은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돼 있다.

셋째 장에는 염불 수행과 함께 스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자비관 수행'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 특히 스님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기도와 체험의 가피 소개 절집 큰스님 말씀들 인용 염불수행과 자비심 강조

이고 깨달으면 부처"라는 단순한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떤 곳, 어떤 상황이든 오직 자신에 맞는 한 수행법을 정하고 일념 정진한다면 자신은 물론 세상이 맑고 향기로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스님은 염불 수행과 함께 특히 자비심을 강조한다. 스님은 이렇게 얘기한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사람이 감응합니다. 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 사람이 감응합니다. 일체중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일체중생이 감응합니다"라고. 특히 스님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옛날 산중에서 공부하던 어느 스님이 그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는 중생제도를 위해 산에서 내려왔지만, 도중에 들짐승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보고는 아직 멀었다 여기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얼마나 공부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비심이 증장했는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강조되는 수행, 이것이 스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과와 기도' 이야기의 전제이자 결론이다.

김주일 기자

불교적 입장서본 '임종에 대한 종합 안내서'



임종,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광, 홍일 지음
박병규 외 옮김
운주사 펴냄
1만1천원

이 책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불교, 특히 정토 불교의 입장에서 자세히 소개하는 '임종에 대한 종합 안내서'이다. 임종을 앞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종을 맞이한 가

족과 지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임종시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매뉴얼까지 수록하고 있다.

현생에서의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 맺는다. 따라서 죽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과가 좋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구경(究竟)의 이치를 지식으로만 알뿐, 실제 육체의 죽음에 임해 그러한 이치를 현실적으로 시현하는 깨달음과 수행력을 갖춘 사람은 지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번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

에 의거하면 태어나는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임종할 때이다. 왜냐하면 목숨을 마칠 때가 범부가 되느냐 성인이 되느냐, 사람이 되느냐 축생이 되느냐, 악도에 떨어지느냐 선도에 나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기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임종을 준비하거나, 혹은 임종을 맞은 가족들이 임종 후의 대처 방법들을 사전에 정확히 인식하고 준비한다면 임종자가 원하는 대로 극락왕생의 원을 이룰 수 있다.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임종자의 분노나 고통 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좀 더 나은 세계로 환생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본조계종 종정 회암



불교언론으로서 그 역할 다해오신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를 전 종도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더욱 발전하시고 종파를 초월한 범종단지로서 큰 뜻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 승가회 회장 무공



현대불교신문이 1000호를 맞는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휴간 없이 발행한 것이며, 그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말로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불교역사의 큰 성과이며 행복입니다. 그 큰 성과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더욱 발전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